

백승준 행정학 강의계획서

“기출문제의 자세한 풀이와 정확하고 안전한 콘텐츠 및 자료를 통해
총론에 대한 심도 있는 확인과 각론에 대한 체계성 학습으로
행정학 고득점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강의!”

■ ■ 담 당 **백 승 준** (유민봉 한국행정학 개정위원)

■ ■ 강의일정 2017년 **8/31(목)** ~ 9/19(화), **총 17회** ※ 주 2회(1시간, 50점) 복습모의고사진행

■ ■ 시 간 [오후 실강반] ※ 실강반에도 필기자료가 제공됩니다.

1) 1시간 복습시험 : 1시 ~ 2시

2) 강의 시간 _ 시험이 있는 날 : 2시 10분 ~ 5시 20분 / 시험이 없는 날 : 1시 40분 ~ 5시 10분

[익일 오전영상반]

1) 1시간 복습시험 : 8시 ~ 9시

2) 강의 시간 _ 시험이 있는 날 : 9시 10분 ~ 12시 20분 / 시험이 없는 날 : 8시 40분 ~ 12시 10분

■ ■ 강의교재 ▶ 교재 : 행정학 WORKBOOK(백승준, 실비제공, 예비순환 교재와 동일) +
한국행정학(유민봉, 서점구매)

■ ■ 강의특징 1. 기출문제 기반 강의 - 기출분석을 통한 안정적 기반 확립

수험에서 모험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행정학(行政學)이라는 학문을 수험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콘텐츠부터 차근차근 소화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1순환의 안정적 기반과 토대 속에서 본격적인 수험행정학을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 양질의 수험자료와 연계된 『행정학 WORKBOOK』의 체계적 학습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수험전략은 양질의 수험자료 확보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주요 교과서(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및 수많은 논문 자료와 정부발간자료를 정리해서 단권화한 『행정학 WORKBOOK』을 통해 수험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

경제학에서 미시와 거시가 모두 중요하듯이 행정학도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합니다. 총론과 각론을 모두 중요히 다루어 1순환을 진행합니다. 특히 각론의 다양한 문제해결기법들은 고시 과목중에서도 행정학에서만 다루는 소재입니다. 따라서 행정학 특유의 응용사회과학적 시각을 익히기 위해 총론의 심도와 각론의 체계성 두 부분의 유기적 연계를 시도합니다.

강의회차	날짜	강의주제
■ 제 1 회	8월 31일(목)	<p>【행정학 입문-오리엔테이션 및 전체 맵핑】</p> <p>행정학의 전체 맵핑이 진행됩니다. 행정학은 과학적 성격뿐만 아니라, 진단과 처방의 문제해결적 성격을 모두 갖춘 응용사회과학입니다. 따라서 다뤄야 할 영역도 많지만 전체안에서 부분을 부분에서 전체를 연결시키는 능력이 특히 요구되며, 이러한 부분이 미비할 때 소위 말하는 학문에 정체성 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전체 맵핑을 통해 숲을 보는 작업을 진행하며 1순환 진행에 대해 전달해 드립니다.</p> <p>주요 초점은 비전공·초심자라도 행정학에 대한 흥미를 느껴보도록 하는데 있습니다.</p>
■ 제 2 회	9월 1일(금)	<p>【행정학의 접근방법(주요 연구방법론)】</p> <p>행정학의 접근방법을 공부합니다. 행정고시에서 각각 분리된 과목이지만 행정학, 조사방법론, 지방행정론, 정책학, 정보체계론 등은 사실상 하나의 과목군입니다. 특히 조사방법론이 분리 출제되기 때문에 행정고시 행정학만 공부하다보면 마치 행정학이 과학성을 포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과목으로 분리되었을 뿐 과학성의 논의부터 시작해서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행정학의 핵심중 하나입니다.</p>
■ 제 3 회	9월 2일(토)	<p>방법론에 특화한 이번 회차에서는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언급하고 과학적 방법론 및 신제도주의등의 주요 방법론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이 진행됩니다.</p> <p>방법론은 그 자체로도 빈출대상이지만 잘 활용하고 응용하면 행정학을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체 소재의 답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주요영역입니다.</p>
■ 제 4 회	9월 4일(월)	<p>【 NPM과 거버넌스】</p> <p>재정운영의 실패와 강한 정부의 불신으로 서구사회에서 야기된 신자유주의 사조는 행정학적으로 NPM의 직접적인 동인(動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장지향성과 관리지향성의 한계에서 Governance의 개념 대두의 원인이 됩니다.</p> <p>국정운영에 새로운 대안으로 언급되는 거버넌스는 그 개념적 정의의 다양성만큼이나 논의의 시대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p>
■ 제 5 회	9월 5일(화)	<p>거버넌스를 완벽히 이해해야 현대행정학의 논의를 정확히 배울 수 있게 되므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설명해 나갑니다.</p> <p>수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도 거버넌스와 함께 이번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합니다.</p> <p>또한 B. Guy. Peter의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총론과 각론의 결합을 시도합니다.</p>
■ 제 6 회	9월 6일(수)	<p>【행정의 처방적 성격: 전략적 기획과 전략적 관리】</p> <p>행정의 처방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행정학은 인접한 순수사회과학과는 달리 문제해결지향적이고 실용적 성격이 강한 학문입니다. 그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전략기획론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조직운영의 전체적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관리의 시각에 대한 기초기반을 학습합니다</p>

■ 제 7 회 9월 7일(목)

【성과관리】

현재 국정운영의 메카니즘은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로 대표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BSC, 성과계약등평가, 성과관리예산제도 등 성과관리 관련 이슈들을 확인합니다.

■ 제 8 회 9월 8일(금)

【전자정부론(Electronic Government)】

최근 행정학의 새로운 키워드는 정보화 및 전자정부입니다. 특히 최근의 행정운영에 있어 정보화를 행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고 그 이면에는 전자정부의 메카니즘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술문제에 정보체계관련 내용을 반영한 소재가 자주 등장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통해 전자정부의 논의가 행정학에 빈번히 들어오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자업무처리의 핵심 메카니즘을 학습합니다.

■ 제 9 회 9월 9일(토)

【정책학】

정책학은 선택과목으로 독립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행정학에서 다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및 사회영역의 개입은 정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만큼 기본적 속성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 10 회 9월 11일(월)

【정책수단론】

정책수단론은 최근 행정학계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분야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활동(집행)의 독립변수로서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는 행정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실무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변화하는 출제패턴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논의되던 단순한 민간위탁 수준을 넘어서서 BTO, BTL 및 올해 출제된 바우처(voucher), 규제,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현실사례를 정리합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전달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합니다.

■ 제 12 회 9월 13일(수)

【인사행정론】

인사행정이란 직무와 개인의 통합과정으로서 정부활동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활동입니다.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공공 인사행정을 다루어봅니다. 전통적 인사행정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인사행정 혁신에 대해 학습합니다.

■ 제 14 회 9월 15일(금)

【조직론】

조직론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핵심적 사항위주로 철저히 이해하다보면 압축이 가능합니다. 조직행동론과 조직구조론을 모두 다루되, 범위를 폭넓게게 해석하여 조직문화, 갈등관리도 이 부분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16 회 9월 18일(월)

【재무행정론】

전통적 재무행정이론과 재정개혁및 혁신의 모든 부분을 아우릅니다. 참여 정부 기획예산처나 현정부의 기획재정부 자료를 취합하여 현실정책을 완벽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재무행정론은 뚜렷한 개혁적 성과가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빈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제 17 회 9월 19일(화)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Jobs says

This is the text of the Commencement address by Steve Jobs, CEO of Apple Computer and of Pixar Animation Studios, delivered on June 12, 2005.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 ha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Sometimes life hits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you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until you find it. Don't settle.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Stay Hungry. Stay Foolish."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as they signed off.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Stanford Report, June 14, 2005